

신약개론(1)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신약의 구조

복음서(4)	역사서(1)	서신서(21)	예언서(1)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바울서신 13)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일반서신 8)	

1)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야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다.

2) 신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서 5권과 22권의 편지이다. 좀 더 세분화 하면 5권의 역사서를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로 나눌 수 있다. 그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다. 22권의 편지는 세분화 하면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다.

3) 바울서신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옥중서신- 엡, 빌, 골, 몬 /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
 목회서신- 딤후, 딤후, 딤후 / 디모데와 디도에 보낸 편지

4) 순서의 배열: 연도와 서신 간의 관계라기 보다 분량과 수신자에 근거해서 배열됨
 교회를 향한 서신: 롬, 고전·후, 갈, 엡, 빌, 골, 살전·후
 개인을 향한 서신: 딤후, 딤후, 딤후, 몬

5) 일반서신: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일반서신으로 분류

바울서신에서는 수신자의 이름을 서신의 제목으로 사용한다.
 일반서신의 경우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발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 된다.
 사도 야고보: 야고보서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후서
 유다: 유다서

6)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대상은 모르나 대상이 히브리인들로 추정하기에 히브리서로 명명.

7)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씀. 내용에 따라서 예언서 또는 묵시록 이라고 부르지만 서신의 형태를 갖추어 기록되어 서신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사복음서

4권의 복음서는 구약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야가 오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야는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구약의 메시야가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구분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역의 무대	최후의 1주간을 제외하고는 갈릴리 중심이다.	대부분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중심이다.
교훈의 초점	예수께서 각종 비유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교훈한다.	‘나는 ...이다’는 표현으로 예수의 신성(神性)과 구속 사역의 의의를 가르친다.
사역의 초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적을 통해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리고자 함.	예수의 표적과 행동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교훈의 방법	일상적인 삶과 친근한 상황을 통해 간결한 비유나 금언 형태로 메시지를 전한다.	긴 강화(講話) 또는 논쟁을 통해 교훈을 준다.
적대 세력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적대 이유는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의 파격적 행동 때문이다.	주로 유대 백성이었다. 적대 이유는 예수께서 선언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1) 공관복음: 마태·마가·누가복음의 세 권을 일괄해서 부르는 명칭.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뜻.
 - 2)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처음 세 권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ex) 마태복음은 약 58%가 마가나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마가복음은 거의 93%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소개된다.
누가복음은 41%가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타난다.
 - 3)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각자의 신학적 강조점과 문맥에 차이가 있다.
 - 4) 요한복음은 약 8%의 내용만 공관복음과 중복될 뿐 92%가 독창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5) 공관복음서는 A.D. 70년경 이전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대략 90년경에 기록되었다.
 - 6)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에 치중한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개인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교리 중심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 =>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나 관점, 전달하려는 메시지 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 마태복음

① 저자: 마태

- 초대교부들의 지지: 클레멘트, 폴리갑, 터툴리안, 오리겐 등 교부들이 증거
- 돈의 단위들이 나타남: 마태복음은 그의 직업이 세리인 것을 기록. 두 드라크마(마 17:24-반 세겔), 네 드라크마 동전(마 17:27-물고기 입 속의 한 세겔), 달란트(마18, 마25) 마태에게 익숙한 돈의 단위가 기록됨.(1세겔은 4드라크마 가치, 성전세 반 세겔은 2드라크마 가치)

② 특징

(1) 유대적 사고를 고려함

- 유민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야임을 강조함
=> 구약 인용 50회, 구약의 사건 암시 약 75회
마1:22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 사7:14 성취인용 예수님의 탄생에서 구약이 성취됨을 증거
-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주 쓰임 (마태복음 15번, 마가복음에는 1번, 누가복음에는 없음)
=>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보임(출20:7, 신5:11)
-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라는 표현 대신 ‘천국’(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음.

(2) 구조

- 구약의 오경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긴 설교로 구성하고 있음
 - ① 5-7장 산상 수훈
 - ② 10장 제자도
 - ③ 13장 천국 비유
 - ④ 18장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 ⑤ 23-25장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산상수훈 5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비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법으로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일 뿐 아니라(신18:15)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임을 강조함.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증거함(5:17).

(3)복음의 보편성 강조

-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짐.

마2:1-12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동방박사

마13:38 밭은 세상이요...

마21: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16:18, 18:17 4복음서 중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 사용

마28:18-20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명령으로 서신을 끝맺음

(4)왕으로 오신 예수님

- 마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 마가복음

① 저자: 마가

- 전통적인 견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벘전 5:13)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여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함.

- 벘전5:13 “내 아들 마가”라 지칭한 사도 베드로

- 막1:16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됨

② 특징

(1)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씀

- 유대인의 관습 설명 (막7:3-4)

- 여러군데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들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 대상임을 설명해줌 (막3:17)

(2)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음.

- ‘즉시’라는 신속성을 나타내는 부사 자주 사용

- 움직임을 의도하는 동사가 풍성하게 등장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

-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 십자가 사건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여 감.

(3) 제자도 강조

-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복음서를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 (막1:11; 3:11; 15:39)

-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 강조하면서 믿음을 가르치심.(막9:19)

(4) 분량이 다른 복음서 보다 적음.

- 마가는 많은 사건들을 요약하여 전개(마4, 눅4 예수님의 시험 ⇒ 막1:12-13로 요약)

-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춤.

(5) 종으로 오신 예수님

- 막10:44-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 누가복음

① 저자: 누가

- 이방 기독교인,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 ⇒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
-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이며(눅1:1-4; 행전1:1-2 데오빌로여).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 바울의 사랑을 받는 의원(골4:14)이며 바울의 사역을 돕던 동역자였음(딤후 4:11).
- 그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며 얻은 지식과 그의 영향으로 저술함
- 복음서 중 가장 많은 분량,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저술 분량이 신약의 1/4에 해당함

② 특징

(1) 복음의 보편성

- 데오빌로와 같은 기독교에 우호적인 이방인을 위해 저술
-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 전개함
- 사회적 소외계층을 등장시킴 ⇒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

(2)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

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 기도를 강조함

-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3:21), 5장에서 하루 일과 후(5:16), 6장에서 열 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12),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18), 변화산에서(28-29), 10장에서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21),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기 전(1), 22장의 겹세마네 동산에서(39-46),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두 번 기도하실 때(34, 46)등

② 성령의 역사를 강조함

-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1:15),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1:35), 엘리사벳의 고백(1:41-42), 스가랴의 세례 요한 작명(1:67) 등 모든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 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2:25-27) 성령.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고(4:1),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4: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10:21),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심(24:49).

③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 강조함

- 9-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도착하심
-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24:52후-53)로 끝남

(3)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 눅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4) 요한복음

① 저자: 요한

- 초대교부들의 지지: 폴리갑,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등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합니다.
- 예수님의 제자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자이며(21:20),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주 등장하는(13:23; 19:26; 20:2; 21:7) 그 자가 기록했다고 말하므로(21:24) 사도요한이 가장 유력한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② 특징

(1) 기록목적은 분명히 밝힘 (요20:30-31)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믿다' 단어가 98번 나옴 ⇒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2)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개종자들로 봄
 -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줌
- (3)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함.
 - 태초의 말씀(로고스)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자, 성육신하신 분, 독생자 이심을 증거
- (4) 구조
 -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누어 1-12장을 '표적의 책'으로, 13-21장을 '영광의 책'으로 구분
 -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일곱 개의 표적이 나타남
 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요 2:1~11)
 ②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요 4:46~54)
 ③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요 5:1~9)
 ④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표적(요 6:1~15)
 ⑤ 디베랴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요 6:16~21)
 ⑥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요 9:1~12)
- (5) 기독론
 - 7개의 '나는 ~이다'로 자기 정체성을 증거하심
 ①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③ 나는 양의문이다(요10:7)
 ④ 나는 선한 목자다(요10:11)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⑦ 나는 참포도나무다(요 15:1)